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2. Vol. 309

기획특집_ 2021년 새해, 양양의 희망을 말하다



눈 내리고 내려 쌓여 소백산자락 덮어도
매화 한 송이 그 속에서 핀다.

나뭇가지 얼고 또 얼어
외로움으로 반질반질해져도
꽃봉오리 솟는다.

어이하라 덮어버릴 수 없는
꽃 같은 그대 그리움

그대 만날 수 있는 날 아득히 멀고
폭설은 퍼붓는데

숨길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가슴 속 홍매화 한 송이

홍매화 / 도종환

찬 기운을 뚫고 매화가 부끄러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봄의 기운은 매화가 가장 먼저 느끼는 듯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기운도
매화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곱게 피어나는 매화만큼이나 향기롭게 빛나는
여러분의 2021년을 응원합니다.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2021년 새해, 양양의 희망을 말하다
- 08 이슈앤피플_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김주혁 부위원장
- 11 마을가는 길_ 서면 오색2리
-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 음식문화 야사(野史)



양양솔비치

의기양양

- 16 YANGYANG NEWS
- 19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낙산
- 20 의정소식_ 제8대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2021년 의정방향!”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
제향(祭享)에 대해 알아보다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09호

| 발행일 2021년 2월 3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omtom777@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2021년 새해, 양양의 희망을 말하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양양군도 관광 문화 및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힘든 상황을 견뎠다. 새해에는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는 지난 연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북돋아주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따낸 값진 성과이자 지역민들의 희망이 마침내 성취되는 올해는, 양양군도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새해 새 희망을 밝혀갈 양양군의 주요 사업과 가장 큰 역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도시 확장 및 도시 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시 활력 추진

동해북부선 철도 역사 주변 개발을 통한 도시 확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철도 역사 주변에는 양양종합버스터미널과 양양경찰서가 건립돼 철도역과 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도심과 공항 간의 이동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심과의 연계 강화,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역세권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남대천과 낙산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으로 성장 거점을 발전시켜 간다.

2027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 재생계획을 수립해 양양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양양 권역은 원도심 중심으로 남문리와 서문리를 추진하고, 현남은 인구지역을, 강현은 물치 지역을 순차적으로 재생하여 도시 정주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암지구 및 율리 대지조성 사업을 마무리해 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돌봄센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 등 육아 통합보육 센터를 착공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저출산 및 인구문제 개선에 집중한다.



둘째, 대표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 활력 추진

코로나19로 국내 개별관광이 증가하는 여행 흐름의 변화에 맞춰 대표 관광지 홍보에 적극 나선다. 최고의 관광자원인 서핑 활성화를 위한 육상 연습 및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서프시티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조망과 습지체험 시설을 통해 남대천 하구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 등산이나 트래킹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주력해 해파랑길, 38선 숨길 등 20개 코스 213km에 달하는 다양한 길을 알리고, 안내판 및 시설들을 정비해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여행자들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한다.

셋째, 지역 균형 활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양양읍을 중심으로 해안과 남대천 주요 지류 간의 연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그동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조성 및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남대천을 보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남대천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더불어 오색령권, 구룡령권에 대한 주변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농산어촌 활력 추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어촌 관광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촌 등에서는 농산물 판매부진과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 농촌사업을 한데 묶는 연계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농촌 협약' 정책에 대응한다. 또, 7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농촌신활력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 농산물 온라인 매출을 강화한다.

수산물의 유통 체계 강화를 위해 종합 유통물류센터와 산지가공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연어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1,123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 육상 양식장 조성 사업을 유치한다. 또한 연어의 고장을 적극 홍보 조성하기 위해 현북면 중광정리에 연구시설, 양식장, 체험시설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안전을 통한 활력 추진

지난해 양양군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발생해 250명의 이재민과 195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로부터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 509억 원이 확정돼,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강우량 및 수위 측정계를 상류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무선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망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도 더욱 철저히 한다.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공항은 매일 방역을 추진하고 노인 요양보호 및 장애인복지 시설은 출입 제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예방에 중점을 둔다.

2020년은 대부분의 체육 및 문화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강원도민체전도 연기되었는데, 올해 개최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군민의 힘을 한데 모아 56년 만에 개최하는 강원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침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드디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양양군을 비롯한 설악권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원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를 원주환경청에 보내 '부동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의견을 철회하고, 양양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재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부동의' 입장을 반복할 수 없고,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또다시 보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잘못된 해석 및 행정심판법 위반이 예상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하여 보안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기회로 오색케이블카 추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악산의 획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론화되었다. 2001년 오색~대청봉 구간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200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4년부터 국립공원 내 삭도길이를 2km에서 5km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설악산에서의 삭도 설치의 길을 열었다.

이후 양양군은 2011년 3월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 주봉인 대청봉을 대신해 관모능선으로 상부정류장을 변경 신청했지만 이듬해 6월 환경부의 시범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어 2012년 11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보완한 삭도설치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공원위원회의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부결됐다.

민선 6기로 취임한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삭도추진단의 조직 정비와 함께 오색케이블카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반시설로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각시켰고, 3수 끝에 2010년 최종 시범사업으로 승인됐다.

하지만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과정에서 잇단 소송을 겪었고,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2019년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최종 인용을 이끌어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일시 사용허가, 국유림 사용허가, 공원사업시행 허가,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일원인 서면 오색~끝청 간 3.5km 길이에 중간지주 6개를 설치하고, 케이블카 정상인 끝청 하단에는 전망홀과 산책로를 포함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상부정류장이, 입구인 오색지역에는 지상 2층, 지상 1층 규모의 하부정류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세부 목표를 세웠는데, 공사과정에서 각종 건설 자재는 하부에서 조립해 헬기로 운반하며, 공사시점부터 생태변화 모니터링 실시, 향후 8년간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적 변화 및 생태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악산의 환경 훼손 복구·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운영수익의 15%를 환경관리기금과 야생동물보호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올해 비로소 추진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바람이자 희망으로 설악권 관광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번 재도전의 기회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으로 따낸 성과이다.

양양군민의 꿈을 실어 나를 오색케이블카

여느 겨울보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의 끝자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양양군민 모두 얼싸안고 기뻐한 순간, 김주혁 부위원장(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은 울컥 눈물이 났다. 수십년간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과천으로, 세종시로, 대전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던 시위와 집회 현장이 떠올랐던 것일까. 양양군의 숙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던 그를 만나, 그동안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되살아난 불씨에 눈물이 울컥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2019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고,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김주혁 부위원장(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이하 오색케이블카추진위))은 10여 일이 지났지만 가시지 않은 감기 기운과 그날의 감동으로 목소리가 잠겨있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 시간이 돌아보니 참 긴 세월이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떨떨합니다. 오색케이블카추진위에 몸담으면서 7명의 위원장을 모셨더군요. 이미 작고한 분도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한 게 참 아쉽죠.”



40여 년 전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오색케이블카추진위의 모양새를 갖춘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세각 전 군번영회장과 고(故) 박용길 전 도의원이 공동위원장을 시작으로 이태희 남대천보존회장, 김현수 전 군의장, 고(故) 김관호 전 번영회장, 안석현 전 위원장, 정준화 현 번영회장까지 7명의 위원장이 김주혁 부위원장과 함께했다. 처음엔 딱히 직함도 없이 일을 맡았다. 이후 사무국장으로, 환경분과위원장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을 맡으며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매진해왔다.



양양발전을 위한 신념이 버티게 하는 힘

송암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20대 부산에서 3년간 양복 재단 일을 배우고 고향에 돌아와 30년간 양복점을 운영했다. 37살에 양양JC(청년회의소) 회장을 맡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눈을 뜨고 양양 일이라면 주저 없이 나서게 됐다. 오색케이블카추진 집회가 있는 날이면 가게 문을 닫고 생업은 뒤로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환경 훼손을 이유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나지 않다가 다시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가 또다시 환경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가, 여러 차례 엇치락뒤치락 긴 싸움이었다. 무산될 때마다 군민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다시금 주저않지 않고 군민과 다 함께 의기투합해 매번 다시 일어섰다. 그렇게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선 세월이 20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한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는 촉촉해진다.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끝을 보고 싶었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고, 지역민을 위한 일이다 싶으면 물러서지 않고 하게 되더군요. 오색케이블카도 그런 마음으로 꼭 운행하게 만들겠다! 샵 뜨는 걸 꼭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는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양을 위해서 식별만 아홉 번

양양의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위와 집회 현장에 항상 그가 있었다. 오색케이블카 추진 이외에도 핵폐기물 처리장설치 반대, 양양 속초 행정구역통합 반대, 플라이강원 허가촉구 시위 등 늘 지역 현안에 발 벗고 나섰다. 양양지역발전을 위한 시위와 집회에서 김 부위원장이 식별한 횡수만 아홉 번이다.

물론 맘고생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다. 정치인과 행정기관, 군민, 이 세 박자 사이에서 그의 역할은 크다.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게 하는 건 힘든 일이다.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거겠지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오색케이블카 추진이 무산될 때마다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은 적도 많다.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 김 부위원장은 사진을 잘 찍지 않는다.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더는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사진 촬영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건 지역을 위해서 일한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다. 그래서일까, 그는 모든 공을 군민에게 돌린다.

“양양군민이 모두 하나가 돼서 뽕뽕 뭉친 것이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죠. 매번 집회 현장에 마을마다 버스 한 대씩 동원해서 움직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묵묵히 끝까지 서포터를 하고 싶다.

아직은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있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허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행정기관에 협조하고 소통으로 남은 일을 잘 마무리해서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때까지 열심히 서포터할 계획이다. 모든 양양군민의 꿈이자, 김주혁 부위원장의 꿈을 싣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하늘을 나는 그날까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오색2리

오색지구의 옛 영광을 찾으려는 노력과 시도
오색케이블카로 새롭게 열릴 마을의 미래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더 뚝뚝 뭉친 주민들

오르막길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내리막길도 있다는 뜻이다. 오르막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건, 언젠가 정상에 닿으리라는 믿음과 이제 곧 수월한 내리막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다. 오색2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오르막길 위에 있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르막길을 선택한 그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마을에 새로운 길을 펼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왔다. 그들은 긴 여정 끝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오색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과 점봉산 사이에 자리한 남설악 오색지구는 단풍이 짙고 아름답기로 유명해 가을 산행지로 인기가 높았다. 게다가 '오색약수'라는 이 지역의 명물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발걸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일대에 자연스럽게 관광단지 형태가 형성되었고, 오색2리에 거주하는 130가구의 주민 절반 이상이 식당과 펜션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했다. 해외여행이 흔치 않은 3~40년 전만 해도 오색지구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별이 가뽀했다고 박원규 노인회장(83세)은 회고한다.

하지만 그것도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경기 침체와 자연 재해 등 오색지구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예전

의 명성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생계유지도 어렵게 되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마을에 남은 것은 문을 닫은 상가와 빈집, 그리고 주민들의 한숨뿐이었다. 특히, 침체된 오색지구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목적으로 1980년 말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승인과 불허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오색2리가 예전의 명성을 찾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것에 온 주민들이 마음을 모았다. 가게 문을 닫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정부의 부동의 결정에 맞서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길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던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행정심판 인용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색2리 주민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마을의 어른인 박원규 노인회장은 양양군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 더욱더 반갑다며 소감을 전했다.

“내 나이가 여든을 넘겼는데, 오색케이블카를 타고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마음을 조금 알아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색케이블카) 덕분에 주민 생활도 좋아질 것이고, 인근 지역까지 다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유치를 위해 애써 온 정준형 이장(50세)은 향후 변화하고 발전될 마을의 모습을 그려본다.



“오색케이블카가 운행된다면 하나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색지구만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낙산이나 강릉, 속초 등과 연계되어서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한시라도 빨리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의 땀으로 일구어가는 마을의 미래

오색2리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오색지구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에 먼저 나서고, 구조 활동과 환경 정화 활동에 매진한 이유이다. 이훈 총무(61세)는 환경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춘 오색2리가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는 마을이 되길 바란다.

“(오색2리는)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고, 깨끗한 물을 갖춘 힐링 마을입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힐링을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환경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색케이블카 운영을 통해 등산로 훼손을 줄일 수 있고,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할 수 있어 개체 수 보존에 기여하는 등 오히려 환경 보호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오색케이블카의 순기능을 입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색2리 마을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2015년에 발생한 인사사고로 폐쇄되었던 흘림골 탐방로 재개방 공사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정비사업’까지 올해 12월에 완료되고, 오색케이블카 운행까지 방점을 찍으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마을 분위기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동안 주민들이 땀과 눈물을 쏟아내며 기다려 온 사업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월 25일에 송부한 재결서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와 양양군,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오색2리 주민들이 노력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동안 주민들이 땀과 눈물을 쏟아내며 기다려 온 사업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월 25일에 송부한 재결서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와 양양군,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오색2리 주민들이 노력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음식문화 야사 400년 전, 양양 최초의 산해진미가 있었다

맛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진귀한 음식재료의 뜻에 더 깊은 의미를 둘 때가 있다. 이를 산해진미(山海珍味)라 하고, 산해진미로 잘 차린 상차림을 진수성찬(珍羞盛饌)이라 한다. 본래 이 말들은 1400년 전, 당나라 시인 위응물의 장안도(長安道)라고 하는 시詩에 산진해착(山珍海錯)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런데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음식'이라는 산해진미가 '맛있는 음식'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본래는 대부분 쉽게 먹을 수가 없는 짐승의 것으로 만든 괴기한 음식이었다. 400년 전, 양양의 어느 한 사람도 이처럼 짐승의 것으로 만든 괴기한 산해진미(山海珍味)를 유달리 잘 만들어 조선(朝鮮)에서 소문이 자자했는데, 막상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늘처럼 여겼던 선대先代의 사람들도 그의 음식은 차마 먹기를 주저거렸던 괴이한 기식(奇食)의 음식이었다.

표범 땃줄 요리의 달인 어느 양양 사람

본래의 '산해진미'는 용의 간, 봉황의 골, 토끼의 태반, 낙타의 혹, 매미의 배 껍질, 곰 발바닥, 원숭이 헛바닥, 표범의 땃줄로 만든 이외의 음식으로, 당나라 황실에서 중국의 8대 진미珍味로 즐겨 먹던 음식을 말한다. 이처럼 달에 있다는 계수나무를 구하듯, 재료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누구나 쉽게 맛 볼 수 없으면서,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의 음식이 본래의 산해진미 즉, 산진해착(山珍海錯)이다. 그런데 이렇게 귀이한 산해진미 중에서 그 양양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음식이 놀랍게도 '표범의 땃줄'로 만든 '표태(豹胎)'요리였다. 그 양양 사람이 어느 마을의 누구였는지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설악산이나 한계령, 오색령 근처의 산간에 살았던 사냥에 능한 포수가 아닌가 싶은 것은, 나무를 잘 타고 은밀하면서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는 '표범'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양양 사람들이 살던 400년 전의 여러 문헌에 우리 땅 곳곳에 호랑이와 표범이 득실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코지를 하였다는 기록들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인 포수들을 앞세워 죽이거나 포획한 표범이 624마리나 되었다. 이후로도 1970년대까지 설악산 대청봉을 중심으로 내·외설악산에서 표범이 발견되어 포수들이 사냥에 나섰으니, 그 양양 사람이 포수가 아니었던가 싶은 것이다. 옛 문헌에 특정 음식을 잘 한다는 조선팔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지만, 이처럼 양양 사람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처음인데, 그 양양 사람이 '표태(豹胎)'요리를 아주 잘 만든다고 했던 이가 바로,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조선 최고의 미식가였던 허균(許筠)이었다.

미식가 허균許筠도 맛있다고 했던 양양 최초의 산해진미

허균은 양양까지 찾아와 표태요리를 맛 본 후에, 조선팔도의 맛있는 음식을 기록한 도문대작(屠門大嚼)에 “다른 지역의 것은 불결하여 먹을 수가 없었는데, 양양 사람의 것은 맛이 아주 좋다”라고 기록하였다. 아쉽게도 그 양양 사람이 잘 만들었다는 표범의 땃줄 요리방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땃줄 요리에 관한 옛 문헌에, 대나무 가운데 가장 굵은 '참대'로 만든 향아리에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 약한 불기운으로 말리고, 먹을 때에도 꼬박 하룻밤 동안 식초 물에 담궜다가 또 한번 약한 불기운에 말려야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 양양 사람이 표범의 땃줄로 만든 반찬 또한 이 같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필 그 양양 사람은 술한 산 짐승 중에서도 표범의 땃줄을 이용한 음식을 잘 만들게 되었을까. 이는 새끼를 배면 태어날 때 까지 요동을 친다는 표범의 태반(胎盤)뿐만 아니라 산해진미로 열거된 짐승들의 귀이한 특정부위가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의 몸을 보전하여 장수를 하게 한다는 양생음식(養生飲食)으로 여겼는데, 조선 왕실에서도 이를 양생 음식문화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표범과 호랑이가 특히 많았던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표범의 가죽과 땃줄을 궁중에 진상하게 되었는데, 양양에서도 표범을 궁중의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문헌의 기록이 있다. 이를 보아 그 양양 사람은 표범 사냥에 능했던 포수이면서 손질한 표범을 양양의 진상품으로 올렸던 책임자의 신분으로, 표범의 땃줄 요리 또한 잘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비록 절대적 지미(知味)의 음식은 아니더라도, 그 양양 사람이 만든 표범의 땃줄요리는 특정의 상징성으로 오래 살기를 염원했던 양양 최초의 산해진미(山海珍味)이자, 주술음식(呪術飲食)이었다.





양양군 보건소장에 “권성준 보건소장” 18일 임용

양양군보건소장에 권성준(66)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군은 보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공모를 통하여 권성준 보건소장을 지난 1월 18일 임용했다.

권 보건소장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내 위암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3,000건 이상의 위암수술과 함께 대한위암학회장, 한양대학 병원장을 역임한 명의로 알려져 있다.

권 보건소장은 “대학병원에서 교수 및 의사로 살아온 32년간의 노하우를 잘 조합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을 보다 윤택하게 향상시키는데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임용장 수여식에서 “보건소는 현재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중책을 맡고 있는 핵심부서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방역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임신부 건강 지킨다!

양양군 보건소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산부인과의가 없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 불편해소에 나선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양양군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6일 첫 진료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총 4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산전 기본진료,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혈액·당뇨 검사 등의 검진을 실시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군보건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를 희망하는 임신부는 사전예약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임신계획이 있는 기임기 여성의 진료 및 검사(기초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자궁초음파 검사 등)도 무료로 실시한다.

양양군, 2021년 군정업무보고... 부서별 핵심 사업 점검

양양군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회'를 가졌다. 군정업무보고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확인·점검하고, 새로운 미래비전과 신규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보고회 중의 하나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으며, 김진하 군수를 비롯해 김호열 부군수,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등 핵심 간부공무원이 각 실과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추진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2021년도 주요계획과 현안사업 추진 전략, 신규 시책사업 추진 계획, 업무 중점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양군 흡연율 큰 폭으로 감소... 금연정책 성과

양양군보건소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인 흡연율이 17.2%까지 감소하는 등 양양군의 건강척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른 양양군의 흡연 인구는 4,248명(남자 3,980명, 여자 268명)이며, 흡연율은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2위(1위 춘천시 15.3%)에 해당하는 수치로 강원도 평균(19.2%)은 물론 전국 평균(20.3%)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18년 흡연율(21.7%)과 비교했을 때 4.5%가 줄었고, 2020년까지 목표했던 18%보다도 낮은 수치로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금연교육과 클리닉,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결과라는 평가다.

군은 2025년까지 흡연율을 16.2%로 줄여나간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2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담배연기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 큰 호응

양양군이 주민회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2019년부터 주민회합 및 마을자치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주도형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주민주도형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군은 지난 1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청곡2리 마을 외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한편, 시상식을 갖고 4개 마을공동체에 시상금을 전달했다.

올해도 주민 제안에 의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15개 마을 내외)에 1개 공동체당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역개발 행정수요 전년대비 26% 상승

양양군의 2020년도 각종 지역개발수요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는 등 2020년도에도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인허가 및 토지거래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군에서 접수 처리한 개별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건수는 495건으로 2019년보다 40%여 증가했으며, 읍면에서 처리한 건축신고도 2,138건으로 2019년보다 10% 증가했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인허가절차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도 2019년도에 이룬 최고치(2,127건)를 경신하는 2,258건에 이르러 올해에도 건축과 지역개발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 관련 행정수요도 증가해, 2019년도 2,820건이었던 지적 측량성과 검사는 2020년도에 4,464건으로 늘어 60% 정도 증가하였으며 토지분할·합병은 20%, 토지 실거래도 25% 가량 증가했다.



버스승차 알림시스템으로 승차대기 편의 제공

군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양양군은 지난달 버스승차 알림시스템을 양양중학교 앞, 양양고등학교 앞, 강현농협 앞, 홈마트 앞 등 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다. 버스승차 알림시스템은 버스 이용객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승강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벨을 작동 후 대기하면 승강장에 설치된 LED 탑승 알림 등이 작동해 승차 대기자 유무를 버스기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승차 알림시스템 설치로 군민들이 버스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스 운행 기사들도 멀리서도 승강장 대기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본격 스타트

양양군이 강원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고 2021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상생 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지역특화사업, 오케스트라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구성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해인 올해는 4개 추진과제 15개 세부사업으로 '양양'을 비롯하여 ▲서프시티 '양양을 즐기다' ▲양양행복교육공동체 구축 ▲진로코칭 ▲자율동아리 ▲다문화가정지원 ▲교원동아리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특색프로그램 등 15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양양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판로 기반구축

군은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설악산그린푸드 외 6개사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H-Mart 동부지역에서 비대면(무인판매) 특판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에도 6월 24일부터 한 달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에 따른 시식 행위 및 집합금지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악산그린푸드 외 3개 기업(양양오색한과, 대술영농조합법인, 매홍엘앤에프)이 참여하여, 건나물류, 찹쌀약과, 송이과자 등을 판매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은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제품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홍보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제품 발굴에 나설 계획이며, 고정 수출처를 확보하고 관내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올해부터 더욱 변화할 낙산!



1966년의 낙산과 2021년 현재 낙산의 모습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많이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지난해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유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할 낙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제 8대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2021년 의정방향!”



김의성 의장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정책발굴을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양양군의회를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석 부의장 |

이동사무실 운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정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이동사무실 운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옆에서 듣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달릴 것이며,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뜻을 나누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곁에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 김우섭 의원 |

4선의 경험을 살려 관광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사계절 서핑 및 여가문화 조성에 힘써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편리한 생활공간인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택철 의원 |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가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 고재철 의원 |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봉균 의원 |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조례는 매달 중학생에게 5만원, 고등학생에게 7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는 반드시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귀선 의원 |

여성과 아이들이 맘껏 웃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여성과 아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발굴에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일상을 침해할 수 있는 민원불편사항들의 해결방안 모색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개최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보고·청취

1월 11일,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간담회를 열고 2035년 양양 군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양양군 도시계획과로부터 보고받은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에 대해 김택철 의원은 오색케이블카 관련하여 오색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고제철 의원은 해안지역에 대해 서핑 등 모험 관광분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당부했다.

태풍 피해복구 관련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

1월 18일 간담회에서는 건설과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소규모 위험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소교량을 조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지

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 제향(祭享)에 대해 알아보다.



■ 매년 봄·가을 관찰사가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빌던 곳이다.

예전부터 하늘과 땅, 산, 바다, 강 등에 제사 풍속이 있었는데 고려 및 조선시대는 국가 제사에 규범과 규정이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에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 사(祀) 지기(地祇)에 제(祭), 인귀(人鬼)에 향(享), 문선왕(文宣王)에 석전(釋奠)이라 했다.

조선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 동해는 양양(襄陽), 남해는 나주(羅州), 서해는 풍천(豐川)으로 정하고 치제를 관에서 주관하였다. 동해신묘는 중사(中祀)로 관리된 곳으로 매년 나라서 향축(香祝)을 내려 보내 세수(歲首)는 별제(別祭), 2월과 8월은 상제(常祭)로 관찰사가 동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빌던 곳이며 사당의 명칭은 고려 때는 동해신사(東海神祠)라 했고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동해신단(東海神壇)→동해묘(東海廟)→동해신묘(東海神廟)로 변천하였다.

■ 동해신묘 제향기록(祭享記錄)

세종 19년 3월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위패(祠廟位牌)는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 산천과 사묘 편에 동해신사는 부 동쪽에 있고 중사(中祀)이며 봄, 가을 향축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세조 12년(1466)에 동해신묘에 제사하도록 명하였고, 영조 18년(1742) 1월 기사에 향축을 내려 보내 풍농을 빌도록 전교하였다. 정조 24년(1800) 4월 기사에 동해신묘에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을 만큼 이곳을 중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있다.

■ 동해신묘 제례의식(祭禮儀式)

『세종실록』에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中祀)로하고, 세수 제향(歲首祭享)을 별제(別祭), 중춘 중추(仲春仲秋)에 좋은 날을 점쳐 지냈는데 상제(常祭)라 하였고, 제사의식은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에 수록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사시일(祭祀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한 달 전에 음력 2월(仲春) 초하루에서 초월(上旬)사이로 날짜를 잡아서 예조에 보고한다. 그러면 예조에서 중앙에 알리고[啓聞] 해당 관청(攸司)에 준비를 서두르라는 통고[散告]에 따라 제각기 맡은 대로 준비를 한다.

사묘(祠廟)의 위판은 밤나무로 쓰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검은 글씨로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쓰며 높이가 2척 2촌, 너비가 4

〈동해신묘 축문〉

〈전통 찬실(진설)도〉

區分	祝 文	翻 譯
別祭	遼遠臣襄陽郡守○○○ 敬昭香于 東海之神仗以氣百湖深五行伊始功弘 灌溉萬物以成決諸所香之誠俾垂靈積 之慶無任禮禱之至	동해지산에 알드려 고하옵니다. 땅이 가 아득히 깊고도 넓게 땅에 소원이 이에 이룩하였나이다. 땅의 넓은 공 을 고루 퍼서 만물이 생장하게 해마다 주시기를 잘할 때에 비나 이다. 모국이 잘살게 해주는 경사의 오레오래 드리하길 기원으로 삼자 비 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常祭	遼遠臣襄陽郡守○○○ 敬昭香于 東海之神仗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 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禮齊梁盛庶品 式陳明萬向 鑒	동해지산에 알드려 고하옵니다. 큰 비 마의 왕이시어 널리 이롭도록 큰 덕을 베풀어오니 이제 향사중 농량이 마땅하 여 길이길이 많은 복을 이어 주시옵스 시. 이모이 삼가 죄孽 제거와 진한 공 고리고 여러 제물을 갖추어서 법대로 진설하고 빚게 드리오니 돌함하옵스 사.



촌 5푼, 두께가 9푼, 좌고가 4촌 5푼, 두께가 4촌 5푼이라 하였고, 모 축 판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1척 2촌이요, 폭은 8촌, 두께는 6푼이다. 축문은 “국왕 (성)서명 감소고”라 쓴다. 축문은 기일 전에 관원이 받들어 바치는데,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이를 바치면 전하가 서명하고 이를 마치면 친히 사신(使臣)에게 준다.

豚拍=돼지고기, 筍菹=죽순, 鹿醢=사슴식해, 醵大羹=탕, 栗黃=말린 밤, 茨仁=연 열매, 黑餅=검정 시루떡, 脾析=지라 복부를 가른 것, 兔醢=토끼식해, 菁俎=무우, 銅和羹=양념 탕, 乾棗=말린 대추, 菱仁=마름 알, 白餅=흰 시루떡, 醢醢=육장, 簋黍=기장, 簋稻=벼, 魚鱸=어포, 魚醢=고기식해, 芡菹=미나리 저림, 非菹=부추 저림, 籩稷=기장, 簋梁=이장, 形鹽=덩이소금, 棗子=개암 알, 鹿脯=사슴 포, 筐幣=폐백과 주리, 七體星豕=7부위돈육, 七體星羊=7부위양고기

〈재계(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그중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청사(廳事)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하며, 무릇 삼가고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쓴다. 행사집사관은 헌관(관찰사가 하는데, 만약 제소가 겹치면 수령을 나누어 보낸다), 축(祝), 장찬자(掌饌者), 사준자(司尊者), 찬창자(贊唱者), 찬례자(贊禮者)이다.

〈진설(陳設)〉

제사 전 2일에 유사(有司)가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여러 제관(祭官)의 막차[次]를 설치한다.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전 1일에 신좌(神座)를 단상(壇上)에 설치하되, 북쪽에 남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왕골[莞]로 한다. 유사(有司)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헌관의 자리를 단하(壇下)에 설치하되, 동남으로 서향하게 한다.〈이하생략〉

〈행례(行禮)〉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장찬자(掌饌者)가 들어가 제수를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집사자가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례자(贊禮者)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고 도로 나온다.〈중략〉 찬창자(贊唱者)의 흥기에 따라 초헌례·아헌례·중헌례를 행한 후 찬례자의 인도 하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중략〉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창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끝으로 집사자가 신위 판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물러가면 제례행사가 끝난다.

〈1872년 지방지도(양양)〉





이달의 책이야기

면역의 힘

제나 마치오키 지음 | 오수원 옮김 | 월북 | 2021. 1월



코로나19 시대, 면역력이 필요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삶의 모든 방식 소개

세계적 면역학자가 알려주는 100퍼센트 과학적 기반의 면역 바이블『면역의 힘』. 20년간 면역을 연구해온 면역학자 제나 마치오키 박사가 알려주는 면역에 대한 모든 것. 인체의 면역 작동 원리부터, 삶에서 마주하는 면역 관련 궁금증, 삶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과학자의 눈으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책이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 자연과 다른 생활 패턴과 잘못된 수면 습관, 감염으로 인한 공포까지. 현대인들에게 ‘면역’이란 공포 마케팅의 한 종류가 되었다. 마치오키 박사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각종 건강식품 광고, 비과학적 정보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정보는 넘치지만 정작 진실과 거짓의 구별 없이 그때그때 좋다는 것만 유행처럼 바뀌는 현실을 경계하고, 과학과 비과학을 선별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책에서는 ‘면역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기초 과학뿐 아니라 면역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문제적 치료제, 백신의 진실은 무엇일까?’, ‘저탄고지 식단은 면역에 도움이 될까?’, ‘단식과 면역은 관련이 있을까?’, ‘면역 증강 식품은 존재할까?’, ‘면역은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책 속 한 구절

■ 바깥출입도 못 한 채 권태로운 생활을 이어가야 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집에서 꼼짝 못 한 채 스크린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자신의 림프계를 아끼고 스트레칭을 휴식으로 삼고 운동을 간식으로 삼아야 한다.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라도 상관없다. 모두 중요하다. 온종일 움직이고, 또 움직이라. 꼭 움직이라. (팬데믹 시대를 위한 서문_15쪽)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하루한장 마음챙김

루이스 헤이, 로버트 홀든 지음 | 박선령 옮김 | 니들북 | 2021. 1월



세계적인 심리치료 전문가 루이스 헤이가 전하는 매일 한 장 마음 수업!

뉴에이지의 여왕, 자기 치유의 아이콘, 미러 워크의 선구자, 세계적 영적 지도자 등 루이스 헤이를 수식하는 이름은 끝이 없을 정도다. 그녀는 30년 동안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 치유와 영적 성장의 길을 제시해왔다.

이 책은 루이스 헤이가 작고하기 한 달 전쯤, 그녀와 함께 기획된 마지막 책이다. 다양한 루이스 헤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긍정 확언을 엄선해 모았으며, 매일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윤년까지 포함해 총 366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부자엄마 투자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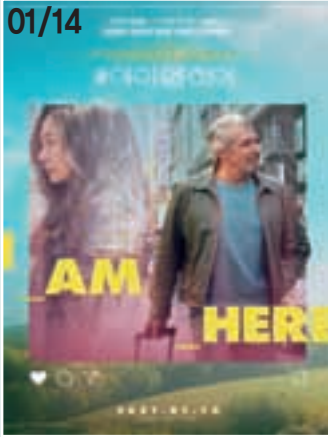
권선영 지음 | 길벗 | 2021. 1월



자녀의 미래도 부부의 노후도 걱정인 당신을 위한 경제 독립 프로젝트

내 아이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엄마라면 부자 마인드를 물려주세요!

이 책의 저자는 미래에 내 아이의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일단 부자 마인드를 물려주라고 말한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부자가 되기를 바라다면 단순히 돈과 집 등 물질적인 것을 주기보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커서 올바르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세인	1명	용접원 (금속구조물제작·설치)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
(주)맥서브	1명	정보통신기기설치 수리원	09:00~18:00 (주5일)	연2,900만원
주식회사 한원	1명	건축기사 (경력수첩 필수)	09:00~18:00 (주6일)	월350만원이상 (협의)
정다운마을	1명	구내식당 급식조리사	2교대	월190만원이상 (협의)
티스테이션	1명	자동차정비사	09:00~18:00 (주6일)	월215만원이상 (협의)
주식회사 퍼스트종합건설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83만원
(주)에스텍시스템 (양양라이프플러스호텔)	3명	시설관리원	3교대 (협의)	월260만원
설악환경산업(주)	1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7:00 (주6일)	월185만원이상
가개온재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10:00~13:00 (주5일)	시급11,000원
아라마크 주식회사 (양양썬비치)	2명	구내식당 조리사	교대근무	시급8,800원 이상
동양산업가스	1명	경리사무원	09:00~17:00 토:14시까지	급여상당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첫째,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둘째, 경작중인 농지 중 폐경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않음
* 폐경 면적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됩니다.
- 셋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 '20년 임대차 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하신 경우 '21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넷째,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며,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1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양양자원봉사대 사무실」 및 「자원봉사자 쉼터」 개소,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양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한정임)는 지난 해 10월 27일(화) '양양자원봉사대 사무실' 및 '자원봉사자 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양양자원봉사대 사무실' 및 '자원봉사자 쉼터(아모르 카페)'는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1층에 위치해 양양자원봉사대(회장 김상기) 회원들을 위한 회의실 및 사무실과 자원봉사자들이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다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또한 리모델링되었다. 양양군민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쉼터를 이용 가능하고, 자원봉사 관련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월 경증 45만원, 중증 80만원)
-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제외
- 신청방법 : 군청 장애인복지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기간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구분	신청 하일	지급 시기	비고
1분기 (1~3월)	4. 15.	4월 말	고용촉진장려금은 당해연도계 지원 신청기간 내제정할 수급처급 가능함
2분기 (4~6월)	7. 15.	7월 말	
3분기 (7~9월)	10. 15.	10월 말	
4분기 (10~12월)	12. 10.	12월 말	+ 22. 4. 15. 이후에는 21년 수급 지원 신청 불가
합계	12월	다음연도 1분기 신청 시금 시	

- 문의 : 양양군청 장애인복지부서 033)670-2689

2021년도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4 ~ 3. 31
- 신청장소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담당),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사업
 -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사업당 융자금액 : (개인) 1천만원~3억원, (단체) 5천만원~1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서식 1매
 - ※ 신청서류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담당(☎033)670-2701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양양 사투리 모음 안내

- 기간 : 2021. 1월 ~ 6월
- 주관 : 양양 사투리 모음회
- 내용
 - 양양에는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특유의 양양 토종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명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들면서 그 자취가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그 말을 수록·보존한 출판물이 없어 안타까움을 가지게 합니다.
 - 점점 소멸되어 가는 우리 양양의 문화, 양양 사투리를 찾아 보존하기 위하여 <양양 사투리 모음회>에서는 농어촌, 산촌 등지에서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양양 토종말을 찾아 수록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락처 : 010-8777-3287(양양사투리 모음회장 김성영)

정보꾸러미

인터넷 쇼핑몰 '강원양양몰' 설맞이 특별할인 실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강원양양몰 설맞이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 강원양양몰은 강원도 양양군의 농가 및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공식 인터넷 쇼핑몰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한해 어려움을 겪었던 양양군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새해 소비진작을 위한 마련한 특별할인전으로 관내 특산물들을 한 곳에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지인들과 친척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맞이한 설날에도 온라인으로나마 정성가득한 선물을 전달하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은 강원양양몰에서 선정한 다양한 제품들의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전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양양군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장어, 연어, 표고버섯, 건시곶감 등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들도 구경할 수 있다.

강원양양몰은 양양의 다양한 생산 제조 기업들을 위하여 강원마트와 연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판매수수료 무료 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주고 있는 착한 쇼핑몰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집에 한 사람은 코로나 검사받기!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대표로 한 사람!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세요!



가구당 1인 코로나19 선제 검사 받기

대상: 강원도민 누구나(가족 중 사회활동이 많은 분)
*합연과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검사

기간: 2021. 2. 14.까지 **방법:** 각 시군 선별진료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페테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척!
제거하기



피그러트리고
파-악
뚜껑 닫기